

순환하는 생명, 그 소중함

최광진 기획 '생명의 그물'전

평론가서 전시기획자 변신
'삶을 위한 미술' 기치 걸고
금중기등 10명 작품 전시

생명이란 무엇인가?

소장 평론가 최광진씨(38).

지난해 여름 국내 미술계를 뜨겁게 달군 소장 변관식의 '외금강 옥류천' 진위논쟁을 불러일으킨 주인공으로 유명한 그가 이번에는 전시 기획자로 변신, '미술을 위한 미술'이 아닌 '삶을 위한 미술'이란 기치를 내건 대규모 전시를 꾸미고 있어 화제다.

금중기 박지숙 신현중 양만기 오경아 홍순명 채미현 김건주 박실 박훈씨 등 모두 10명의 내로라하는 작가들을 내세운 이번 전시 제목은 '생명의 그물'전.

기획당선상금 7백만원을 포함, 총 3천만원의 전시 비용이 들어간 '성곡미술대상-2000년 전시기획공모'에서 33대 1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당당 대상의 영예를 차지한 최광진씨의 역작이다.

"근대 및 현대사를 지배해온 데카르트나 뉴턴의 분석적 사고는 우주를 하나의 기계같은 완벽한 틀로 생각하게 했지만 결국 생태계의 파괴를 낳았다"는 최씨. 환경이 21세기의



최광진씨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것도 바로 이 같은 생태계의 질서 붕괴에 따른 인류의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는 설명이다.

그래서 29일까지 성곡미술관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수학적 법칙이 주도하는 기계론적 사고 대신 상호관계와 연결에 포인트를 둔 '유기체적인 사고'를 통한 생명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반(反)생명적인 시각과 결과가 아니라 마음과 순환, 가변성과 상호성이 키워드인 이번 전시의 기획성은 금중기씨의 '순환'에서 잘 드러난다. 버려진 썩은 나무에 인공 과일이나 꽃, 박제된 새, 인형 등 인조 생명체들이 서식하는 이 작품은 삶은 영원할 수 없으며 죽음은 또다른 시작이라는 자연의 순환 이치를 메시



박지숙 작 'X-Body' 전시 장면.

지로 담고 있다.

식물 유기체들의 생성과 성장, 변형 이미지를 통해 생명의 신비를 추구한 박지숙씨의 'X-Body', 상상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섬에서 생명

과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느끼게 하는 김건주씨의 '상상의 섬, 7개의 문'도 최씨의 기획 의도가 고스란히 반영된 작품이다. (02)737-7650

박인권기자 pistol@sportsseoul.com